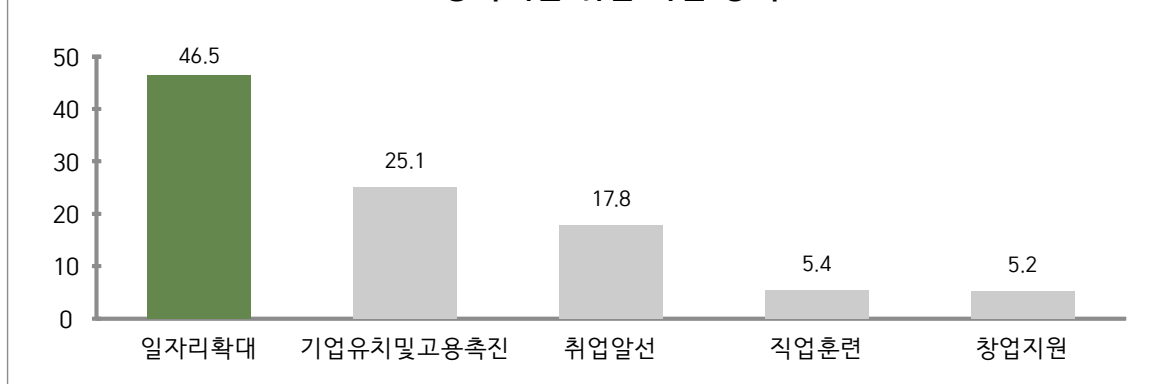


2023년 부산사회조사(남구)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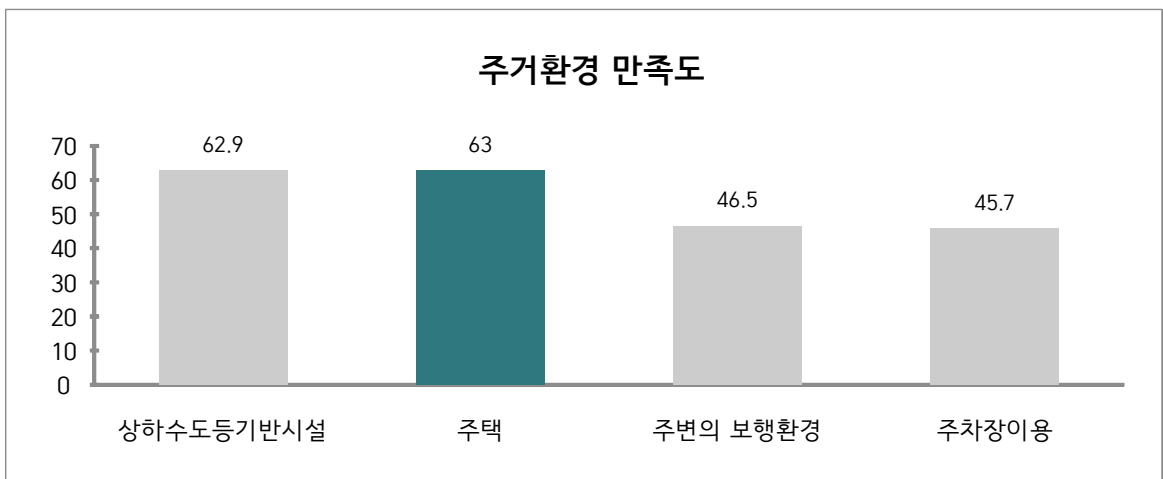


- 주간 경제활동은 일을 「하였다」가 54.1%, 「하지 않았다」가 45.9%로 나타났으며,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「육아·가사」가 45.6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임금근로자 근로여건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「만족한다」가 43.7%, 「불만족한다」는 8.6%로 나타남
- 현재의 직장에 취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 요인은 「유사업종 실무경력(44.3%)」이라 생각함
- 현재 부산에서 취업이 힘든 주원인으로 「인력 흡수할 산업기반 부족」이 33.2%로 가장 높았으며, 「경제사회 전반적인 불안」이 16.3%로 두 번째로 높았음
- 현재 살고 있는 지역(구·군)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「그렇다」 10%, 「보통이다」 47.1%, 「그렇지 않다」가 42.9%로 나타남
-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경우는 16.7%이며, 구직자 중 「인터넷 취업사이트(54.2%)」, 「공공취업지원기관(49.9%)」으로 구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
- 직업 선택 시 「수입(76.1%)」, 「안정성(46.6%)」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
- 부산시 고용촉진 및 확대사업에 대해 「만족한다」 10.4%, 「불만족한다」 24.4%로 불만족 비율이 14%p 높게 나타남
- 부산시(구·군)가 고용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주요 시책은 「일자리 확대(46.5%)」, 「기업유치 및 고용촉진(25.1%)」이라 생각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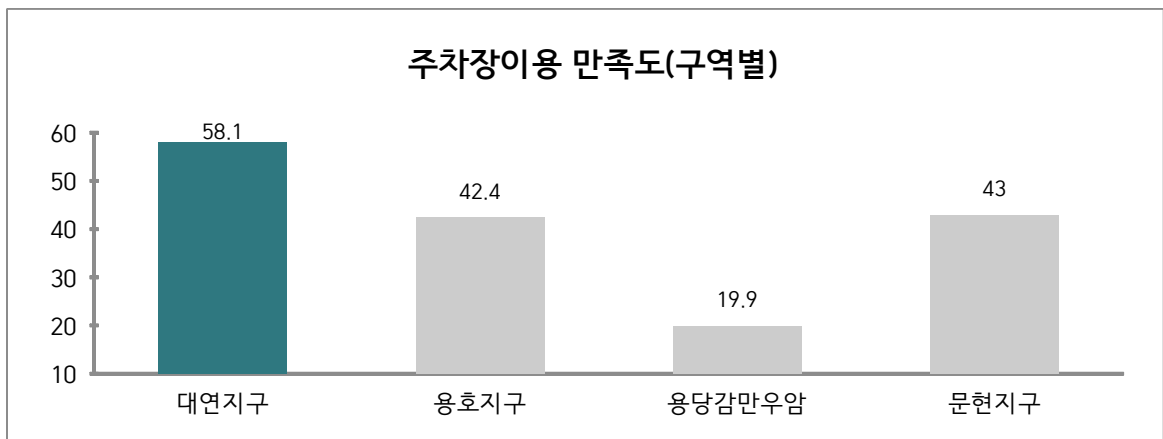
고용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



- 부산에서 「20년 이상」 거주한 부산 시민은 84.5%이며, 남구에서 「20년 이상」 거주한 남구민은 56.8%으로 나타남
-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시민이 80.7%이며, 남구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시민은 74.4%임
-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「주택」 만족도(63%)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「주차장 이용」 만족도(45.7%)가 가장 낮게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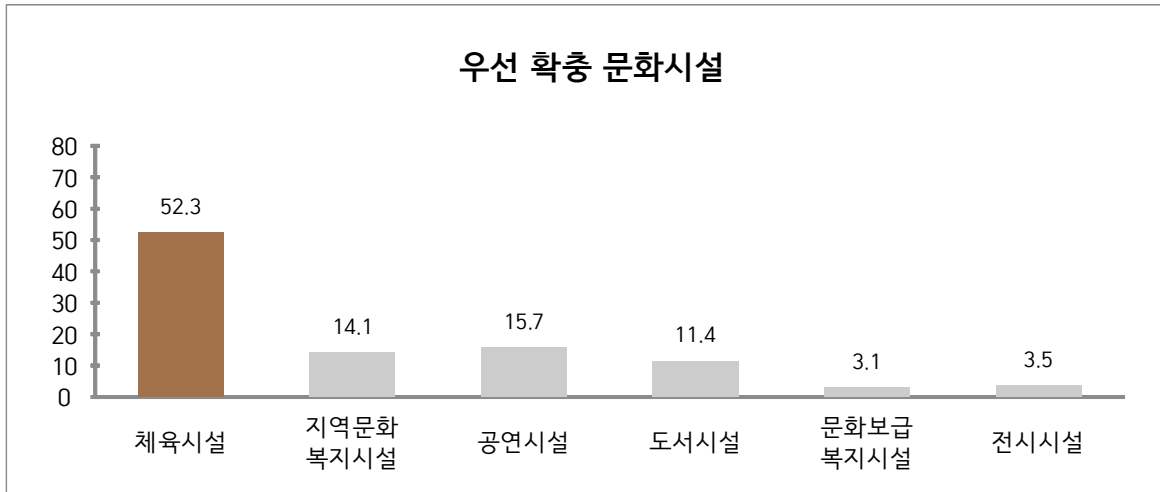
지구별 주차장이용 만족도는 용당,감만,우암지구가 19.9%로 가장 낮게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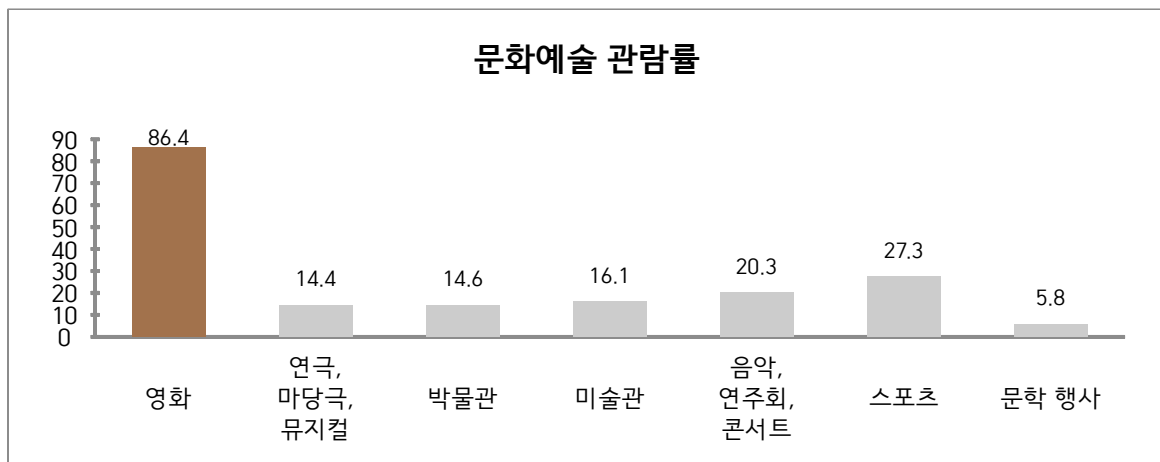
-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에서 「 시내·마을버스(66%) 」, 「 지하철, 경전철, 동해선(62%) 」 「 택시(50.4%) 」 순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.
- 통근·통학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「 자가용(승용차) (37.1%) 」, 「 시내버스, 마을 버스 (24.1%) 」, 「 도보(23.1%) 」 「 도시철도(지하철) (11.6%) 」 통근·통학 평균시간은 29.7분인 것으로 나타남



- 문화여가시설 만족도에서 「만족한다(34.9%)」, 「보통이다(47.8%)」, 「불만족한다(17.3%)」로 나타났으며, 우선 확충되어야 할 문화여가시설로 「체육시설(52.3%)」을 가장 많이 선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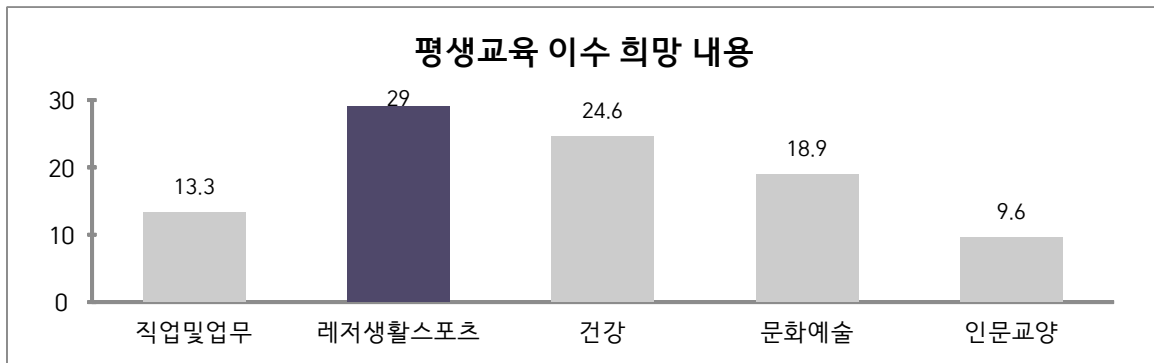
- 여가 활용 만족도에서 「만족한다(25.7%)」, 「보통이다(46.9%)」, 「불만족한다(27.4%)」로 나타났으며, 불만족 사유는 「경제적 부담(38.9%)」을 가장 많이 선택
- 남구민 절반 이상이 평일 시간이 「부족(52.1%)」하다고 느껴 시간 압박을 받으며, 주말에는 「부족(33.7%)」로 평일보다 시간에 대한 압박을 덜 느낌
- 여가 활용 부문에서 주말이나 휴일에 「휴식활동(56%)」, 「동영상 콘텐츠 시청(55.8%)」, 「문화 예술 관람(46.1%)」으로 여가를 보낸다고 응답
- 지난 1년 동안 부산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52%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관람률이 저조했던 2021년에 비해 25.6% 상승하였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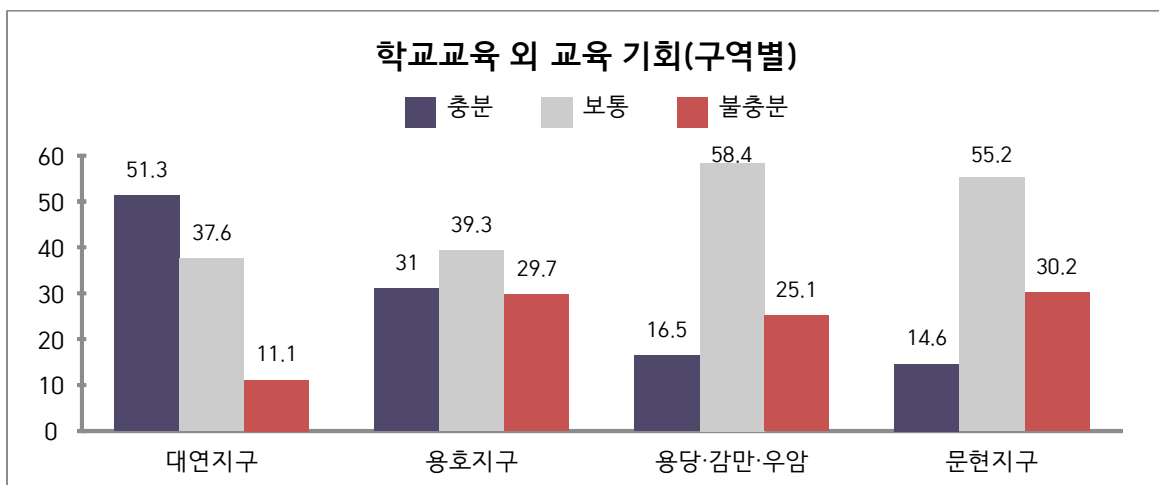


교육

- 학교 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「지식·기술 습득」 부문에서 효과가 있다는 비율이 53.4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남구민 중 53%가 평생교육 이수를 희망하고 있으며, 희망 내용은 「레저생활스포츠관련(29%)」, 「건강 관련(24.6%)」, 「문화·예술 관련(18.9%)」 순임



- 보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「만족」 69.1%, 「보통」 22.6%, 「불만족」 8.2%로 나타남
- 공교육 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「만족」 48.7%, 「보통」 37%, 「불만족」 14.3%로 나타남
- 학교교육 외 교육 기회 조사 결과 「충분」 34.2%, 「보통」 44%, 「불충분」 21.8%로 나타났으며, 「충분하다」 응답률은 대연지구(51.3%)가 가장 높았고 「불충분하다」 응답률은 문현지구(30.2%)가 가장 높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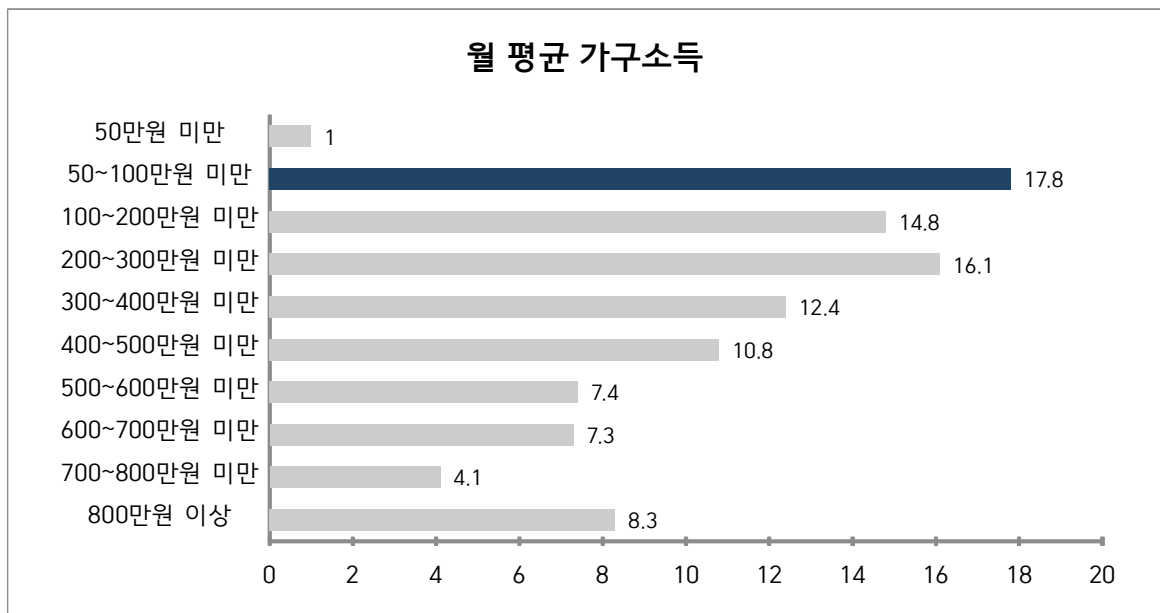


-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53.3%며, 그 중에서 교우관계 부문(79.5%)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
-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조사 결과, 전체 월평균 사교육비는 74만6천원이며, 고등학생이 113만1천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함
- 자녀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으로 교육비가 「부담된다」고 응답한 가구는 62.7%며, 40대(가구주)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비율이 72.7%로 가장 높음



소득·소비

- 남구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은 「대형마트(28.1%)」, 「전통·재래시장(24.8%)」으로 나타남
- 전통(재래)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「주차장 건립 및 확장(34.6%)」, 「재래시장 시설 현대화(23.4%)」, 「거래형태 개선(16.1%)」 순으로 나타남
- 19세 이상 부산 시민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79%이며, 본인의 소득에 「만족(22.3%)」, 「보통(48.5%)」, 「불만족(29.1%)」로 나타남
- 생계유지를 하는데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, 「자주 있었다」 3.8%, 「가끔 있었다」 28.7%로 나타남
- 월평균 가구소득은 「50~100만원 미만(17.8%)」, 「200~300만원 미만(16.1%)」, 「100~200만원 미만(14.8%)」 순으로 나타남



- 장래 가구소득이 「나아질 것이다」 16.6%, 「현재와 비슷할 것이다」 63.2% 「나빠질 것이다」 18.2%로 나타남
- 남구 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38.2%이며, 부채 사유로는 「주택임차 및 구입(77.5%)」이 가장 많았음
-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이 「50-100만원 미만」인 가구가 22.2%로 가장 많으며, 월평균 소비 지출액이 「300만원 미만」인 가구가 62.1%를 차지함
- 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항목은 「식료품비(89%)」이며, 「보건 의료비(41.3%)」, 「주거 및 가구집기·가사 용품비(28.4%)」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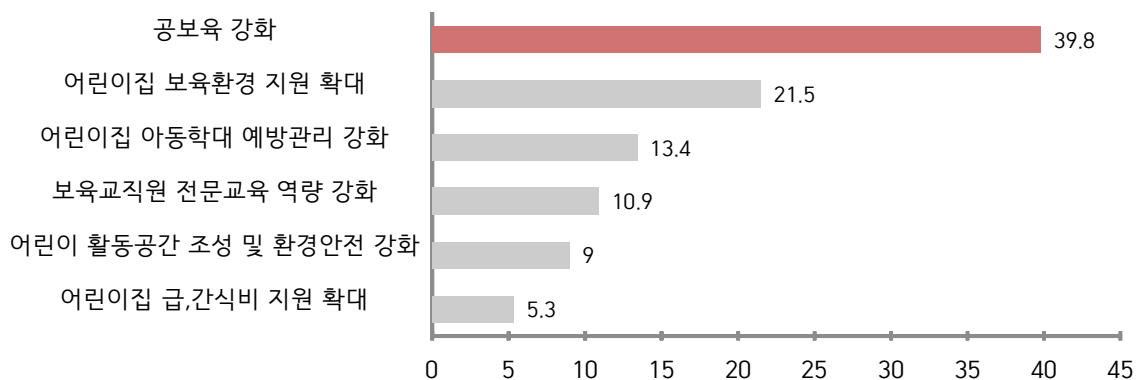
1.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

- 15세 이상 남구민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6.1점으로 「보통」 이상이며 2021년 대비 0.3점 증가하였음

2. 대상자별 필요시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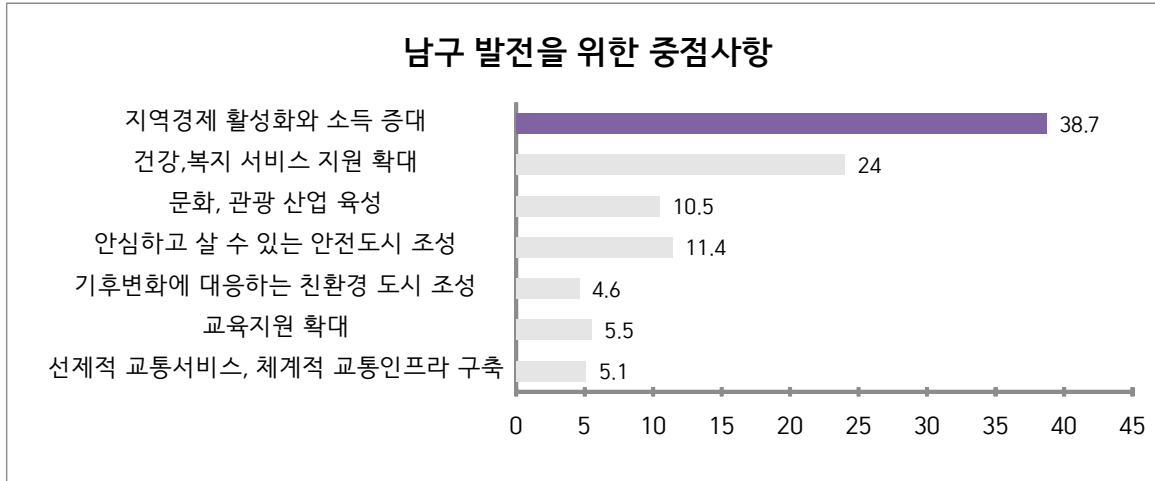
- (노인) 사회참여 기회 확대(33.1%),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(17.8%),
노인의료 복지시설 확대(15.6%),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대(13.7%),
노인주거 복지시설 확대(12%)
- (여성) 경력단절 여성 취·창업 지원(34%), 출산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(20%),
아이돌봄 지원 확대(17.2%), 여성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대(16.9%),
안전 강화(9.6%), 가정·성폭력 상담서비스 제공(2.3%)
- (청년) 취업·창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(35.7%), 지역 내 고용 창출(30.8%),
주거환경 지원(11.8%), 예비창업자 지원(10.4%), 취업 준비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(8.1%),
청년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(3.1%)
- (영·유아) 공보육 강화(39.8%), 어린이집 보육환경 지원 확대(21.5%),
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·관리 강화(13.4%), 보육교직원 전문교육 역량 강화(10.9%),
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및 환경안전 강화(9%), 어린이집 급·간식비 지원 확대(5.3%)

대상자별 필요시책(영,유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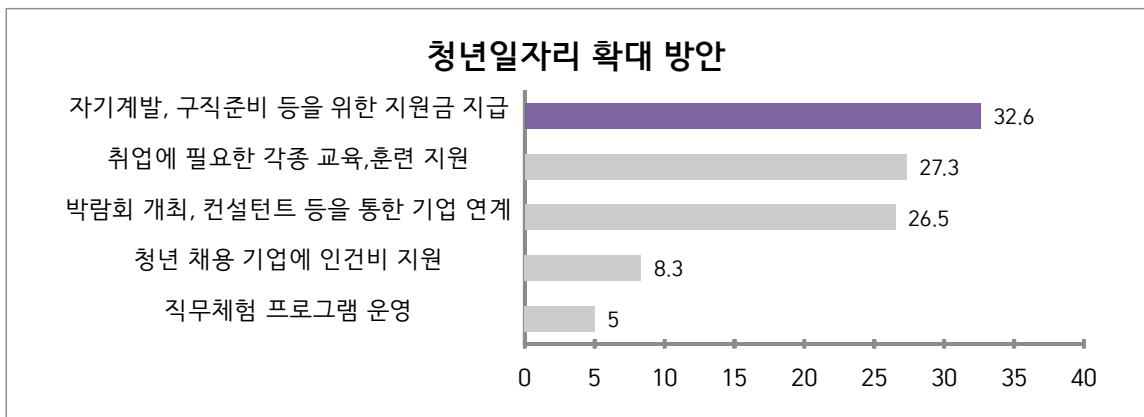


남구 특성항목

- 남구 발전을 위한 중점사항으로 「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증대」 38.7%, 「건강·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」 24%로 나타남



- 구정정보 획득 경로로는 「남구소식지(남구신문)을 통해서」 40.1%, 「언론매체를 통해서」 18.8%, 「인터넷 검색을 통해서」 16.7% 순으로 나타남
-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「자기계발, 구직준비 등을 위한 지원금 지급(32.6%)」, 「취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·훈련 지원(27.3%)」, 「박람회 개최, 컨설턴트 등을 통한 기업 연계(26.5%)」, 「청년 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(8.3%)」, 「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(5%)」 순으로 나타남



- 일·돌봄 병행에 대하여 「어려움(49.5%), 보통이다(45.4%), 어렵지 않음(5.2%)」으로 응답함
- 구민이 생각하는 인구증가 방안으로 「일자리 창출, 취업·창업 지원, 기업 유치 지원(51.7%)」, 「주거환경 개선(27.1%)」, 「문화·여가·편의시설 확충(25.3%)」, 「지원금 지급(22.9%)」, 「교육 및 보육환경 개선(22.6%)」, 맞춤형 복지 지원(16.1%) 순